원행 스님 "백만 서원 모아 절망을 희망으로"

추석명절 앞두고 각계 인연에 4년 소회 인사

총무원장 임기만료 한달 전
편지글과 저서 〈당부〉 선물
"세상 향한 원력 포기 않고
매사 고민했던 시간 스친다"
"진심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2018년 제36대 총무원장 취임식에서 원행 스님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9월 27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각계 인연들에 지난 4년간의 소회와 당부를 담은 인사말을 전했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만 송이 서원의 꽃으로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고자 했던 소승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인사의 일환으로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담은 편지글을 동봉해 저서 〈당부(불광출판사)〉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매년 명절을 맞아 각계 오피니언 리더 등에 직접 선정한 책을 선물로 보내며 교류해 왔다. 올해 추석은 총무원장 소임자로서 마지막 명절인 만큼, 책과 함께 각별한 감사와 당부를 전했다.

인사말에서 원행 스님은 "소납은 4년간의 큰 중책을 내려놓고 이제 회향을 앞두고 있다"며 "종단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딛고 신뢰받는 종단으로 향하는 기나긴 여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촌각을 다투면서 매사에 고심했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회상했다.

36대 총무원 집행부는 출범 후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전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역대 집행부에서는 겪지 못했던 유례없는 고충을 겪었다. 외부적으로는 정부 방역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 사회 안정에 토대를 둔 모범적인 종교로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찰 재정 및 신도들의 신행 단절 등으로 인한 근본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했고 종무행정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원행 스님은 "지난 4년을 회상할 때 특별한 순간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글로 전함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36대 집행부 최대 성과로 꼽히는 백만원력결집불사에 대한 의미도 짚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한국불교에 닥친 위기상황 속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토대가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십시일반 모연을 통해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와 세종 광제사 건립, 양평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착공 등 두드러진 성과를 냈으며 종단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각 분야 대작불사들이 지속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백만원력이라는 큰 서원을 세우고 불교중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불교의 미래를 위한 마음 하나로 매순간 최선을 다했음을 고한다"며 "백만 송이 서원의 꽃으로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고자 희망했던 소승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아낸 원력을 차기 집행부와 사부대중이 이어가길 바라는 당부도 전했다.

스님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새로운 집행부에서 잘 마무리해 줄 것으로 믿고 저는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 성심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우리 모두 부처님의 그늘 속에서 청량함을 이루고 다함께 불국토가 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인사말과 함께 동봉한 스님의 저서 〈당부〉는 2018년 9월 28일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다'는 발원으로 36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후 4년간의 여정을 사진기록과 법문으로 담아낸 책이다. 스님은 "추석을 맞아 지난 4년간 총무원장으로서 고심하며 활동했던 기록을 사부대중과 나누고자 한다"며 "세상을 향한 원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동행하고자 하는 바람을 소박한 글로 담아냈다"고 의미를 전했다.

조계종, 10월 13일 제18대 종회의원 선거

중앙선관위, 9월 7일 공고
제8대 교구종회의원 선거
9월 20~22일 후보등록기간
10월 10일 직능대표선출회의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및 제8대 교구종회의원 선거가 10월 13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중앙선관위)는 9월 7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및 제8대 교구종회의원 선거' 공고에 따르면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일은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이날 제8대 교구종회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종회의원 후보 등록기간은 9월 20~22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며, 겸직금지 소임자가 입후보할 경우 후보 등록 하루 전인 9월 19일까지 해당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은 9월 27일부터 29일로,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인 명부 열람은 해당 교구본사 종무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종회의원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상 미등록법인 및 사설사암 주지일 경우 제외된다.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와 수행이력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종법준수각서와 투·개표참관인 신고서 등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은 해당 교구의 법계 중덕 이상 재적승에 주어지며 △교구 본말사 주지 △교구본사에서 임명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 종무원으로 해당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 △선거일 기준 4년 이내 시점에 해당교구서 4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 및 해당본사에서 결계와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비구승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거주승 신고는 9월 13~19일 오전 10시~오후 5시 해당 교구본사 종무소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은 9월 27~29일 해당 교구 종무소에서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9월 29일 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에 이어, 10월 7일 종회의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18대 중앙종회 직능대표 및 비구니 종회의원은 10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서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출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왼쪽부터 총무국장 상준, 옥천암 주지 원경, 화계사 주지 우봉,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총무원장 원행, 호압사 주지 현민, 광제사 주지 원묵, 기획국장 미수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신임단장에 원명 스님

직할교구 사찰 주지도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6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원명 스님을 임명했다. 또 직할교구 서울 화계사 주지에 우봉, 서울 호압사 주지에 현민, 세종 광제사 주지에 원묵, 서울 옥천암 주지에 원경 스님을 각각 임명했으며, 총무원 총무국장에 前 기획국장 상준 스님, 기획국장에 미수 스님을 새롭게 임명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 각자 소임을 다한 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사찰 운영과 포교, 복지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KCRP, "국가보안법 2·7조 위헌결정" 촉구

9월 7일 7대 종단대표 호소
"국가보안법은 구시대 산물"

오랜 기간 국가보안법이 가진 모순과 억압적 상황에 우려를 표해왔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손진우, KCRP)가 반국가단체와 찬양 고무 등이 포함된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KCRP는 9월 7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9월 15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공개 변론을 통해 두 조항이 위헌임이 선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CRP는 "국가보안법은 존재만으로도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금지하는 예술 표현,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국가 안보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다루는 사안임으로 이에 따른 혼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을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표현한 KCRP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역량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라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 역량과 발전상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한 선택을 요청한 KCRP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굳게 세워지도록 한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8월 29일 열린 조계종 제63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

조계종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

8월 16~29일 한국문화연수원서
남행자 21명 여행자 14명 입교해
행자 전원 5급 승가고시에 합격

조계종 제63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이 원만 회향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서봉)은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63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21명, 여행자 14명이 입교했고, 총 35명의 행자들은 14일간 수계교육을 거쳐 5급 승가고시에 전원 합격, 사미·사미니계를 받았다.

수계교육 기간 중 성실하고 여법한 수행자의 자세로 교육에 임한 모범 행자 표창은 법암 사미와 향원 사미니, 5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표창은 관송 사미와 혜림 사미니가 받았다.

이번 수계교육 특별법문은 금정총림 범어사 율주 경선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했고, 특강은 '불교전통문화와 승가의 역할'을 주제로 前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현대사회와 출가자의 역할'을 주제로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 '수행자로서의 삶'을 주제로 기본선원장 대전 스님이 강의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